



연재를 시작하며

'소욕지족(少欲知足)'이란 말이 있다. '적은 것에 만족 한다'는 뜻이다. 원래 이 말은 불교의 선(禪) 사상인 '오유지족(吾唯知足)' 즉 '나, 오직 만족함을 안다'는 문언에서 유래한 사상이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는 이제 나이 60이 가까워져서 선 자신의 지나온 인생과 정과 요즈음 세상의 변화를 되돌아보며 이 말의 참뜻을 새삼스럽게 되새겨 보게 된다.

최근 세계경제는 대불황의 국면에 빠져 들었다. 이 혼란이 수습되기에는 아마 수년에 걸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들 삶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규명하지 않은 한, 인간 생활과 경제사회의 장래에도 몇 번이든 지금과 같은 우여곡절과 질곡이 반복 될 것이다.

작년 가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붕괴와 함께 나 자신 '만족함을 알다'는 불교 사상이 눈에 띄게 되었다. '아직 모자란다. 더욱 더 갖고 싶다'는 탐욕과 집착의 생활방식을 반성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소욕지족 사상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소욕지족인가 묻는다면, 우선 소욕지족

사상은 녹색성장 시대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량생산과 소비, 폐기의 확대재생산의 산업화시대는 이미 끝났다. 21세기에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자본주의는 보다 더 커다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세계경제를 활성화시켜 왔지만, 소득과 부(wealth)의 격차 확대, 지구환경 및 생태의 파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자유주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도 1960년대 이후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수출 주도 경제성장주의 노선만을 오로지 달려왔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속에서 세계 구석구석을 돈돈돈, 돈을 쫓아 필사적이 되어 배급주의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종착점이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와 가정의 모멸, 도의의 구조적 붕괴라는 결과로 귀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대처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지구환경의 재생과 소득과 부(Wealth)의 격차축소 등을 통하여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며, 그 중추에 두어야 할 것이 소욕지족 사상이다.

소욕지족 사상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지혜와 행동, 팔정도(八正道) 그 자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소욕지족의 사상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하나가 '지족의 경제학'에 관한 이론적 구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에서 가르쳐오고 있는 '현대경제학'은 '탐욕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21세기의 녹색성장 시대에는 걸 맞는 내용이 아니다. 더구나 현대경제학의 기본원리는 사리추구(私利追求)와 효율 극대화 위주의 무차별한 자유경쟁의 이념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모멸 붕괴를 초래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탐욕의 경제학'에 대신할 '민족의 경제학'이야말로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사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먼저 자기 분수에 넘치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탐욕이란 번뇌와 같은 것이어서 밑바탕이 빠진 항아리요 남을 해치는 칼날이며, 자기를 망치는 비상(飛霜)이기 때문이다. 탐욕을 버리고 적은 것에 만족하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진다. 그리

삶의 올바른 가치관 바로 세워야 할 때

탐욕보다 올바른 '만족의 경제학' 가져야

등 인간사회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負)의 효과를 초래한 주범이기도 하다.

지금의 미국발 금융시장 파탄으로 인한 세계적 불황이 모두가 '돈, 돈, 돈' 하는 국경을 넘어선 시장의 확대와 탐욕 속에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 = 행복'인양 오직 물질적 풍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결과라고 한다면 과연 지나친 해석일까?

그러나 이제는 녹색성장시대이다. 탐욕이 아닌 소욕지족만이 그 대안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는, 향후 21세기의 새로운 경영원리가 단순히 영리추구만의 기업경영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운영이나 개인의 생활방식까지도 고려한 폭 넓은 의미에서 공존의 '경영윤리' 확립이 급선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Table with 2 columns: 자족의 경제학, 탐욕의 경제학. Lists various economic and social concepts under each heading.

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도 소욕지족의 지혜를 살리는 길은 경제의 완만한 성장,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Zero)성장 경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그 옛날의 절대빈곤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겠지만, 하지만 그 때보다 오늘이 과연 모든 것이 비례하여 행복스러운가? 물질주의의 관념속에서 물질적으로 풍만한 가운데서 불안과 불만의 심각성은 소욕지족, 즉 적은 것에 자족(自足)하는 철학적 가치관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자족의 경제학'은 당연히 물질적 욕망에 치우치지 않고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해 소득불평등의 개선, 자원 · 에너지의 절약, 자연환경의 보전을 키워드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불교적 사상을 오늘날 한국의 경제학에 확대 적용한다면 어떨까? 필자는 여기서 '자족의 경제학'과 '탐욕의 경제학'과의 이미지 비교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위의 표>에 요약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된다.

Portrait of Kim Guk-yeom and his biography: 김옥염,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Lists his academic and professional achievements.

① 코치의 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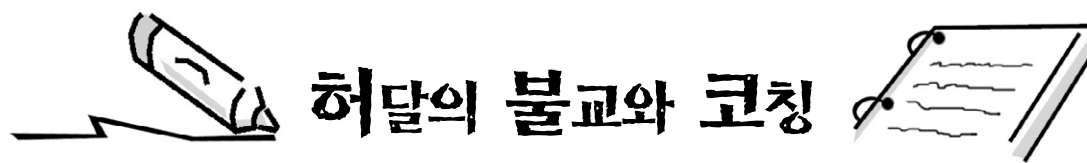
필자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내밀 때 이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사람들로부터 늘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코칭(Coaching)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코칭을 하시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럴 때 히딩크 감독처럼 축구를 코칭 한 다거나, 김인식 감독처럼 야구를 코칭 한다고 짧게 한 마디로 상대방의 궁금증을 풀어 줄 답을 말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훗날 세계 최대의 코칭 회사를 설립한 '이토 마모무'라는 일본인 경영자는 어느 때인가 캘리포니아 사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골프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1주일의 워크숍 기간 중 필드에 나간 것은 불과 2일뿐,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레슨을 받았다. 필드에 나가서도 스코어 카드에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고 매 타 샷을 날릴 때마다 코치가 옆에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평가한다면 지금 샷은 1부터 10점까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움직임에 대한 자각은 몇 점입니까?"

"치는 순간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볼을 보고 있었습니까?" 코치는 그가 말한 대답을 적고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무언가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매번 샷을 할 때마다 코치가 와서 "몇 점?" 하고 묻거나, "자신의 이미지와 지금 한 샷의 차이는 어느 정도?"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다른 시각과 감각을 익히게 되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이토 씨가 받은 프로세스가 바로 '코칭'이라는 것이다. 코칭이란 명칭과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았으므로, 그 해결 방안은 오래 지속되고 행동력도 외부로부터 주어진 해답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여러분은 아마도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상수도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에는 서울에도 마당에 펌프를 묻고 지하수를 퍼올려 쓰는 집이 많았는데, 쓰다 놓아두면 공기

가 새어 들어가 헛 노는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퍼올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었다. 땅 밑을 흐르는 양질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한 바가지 물이 없으면 이를 퍼 올릴 방법이 없을 때 비유하여, 코칭을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퍼 올리기 위한 마중물로 표현한 것이 참으로 미소를 머금게 한다.

영국의 코칭 창시자이며, 짧은 시절 전영(全美), 전유럽 카 레이싱 챔피언인 존 휘트모어 경(卿)이 내한했을 때 그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코칭이 스스로의 인식(Self Awareness)을 끌어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 인식이 책임의식(Responsibility)과 연결되고,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자신감을 얻게 되는 선순환(善循環)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카 레이싱의 실전에서 깨닫게 된 자신의 지혜를 기업 경영에 활용해 보자고 마음 먹은 데부터 코칭이라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이다.

“코칭은내면의 잠재력 퍼 올리는 마중물”

허달

한국코칭센터 고문



SK옥시메틸 부사장과 고문, 한국코칭이메일 사장 고문, SK아카데미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인재개발원 지도위원과 한국코칭센터 고문을 맡고 있다.

Advertisement for Hanbang (韓方) treatment. Text: 한방 (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Han Sol Han MD, 031)555-7780.

Advertisement for Buddhist sutra collection. Text: <경용> 불교상용 의식집 (수정판) 안내! 경용 의식집 5권이면 漢文염불, 우리말 염불, 경전공부까지 다른 책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1. 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 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경전의 내용으로 (한글염불+한문염불)을 부분마다 곁여 조직을 하므로 독송이나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 경용 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염불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출장시에도 편리하며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염불의 내용은 가급적 배제 하였습니다. 4. 경용 의식집은 염불중(운운)을 없게 하고 집전자의 예로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나 초보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 삼경하는 정사를 (2경은-기존염불), (1경은-우리말) 염불로 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므로 별도의 노력 없이도 우리말 염불과 경전공부를 쉽게 숙지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1권 (예경 / 각첨편) - 15,000원 2권 (천도 / 시식편) - 15,000원 3권 (수계 / 방생편) - 13,000원 4권 (장의편) - 13,000원 5권 (점안편) - 15,000원 [全 5권 71,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054)974-1345 /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Advertisement for Daehan Buddhist Fire Insurance. Text: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호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입심사상(立心思想)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礙人 一道出生 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 평등무애(平等無礙)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Advertisement for Buddhist sutra collection. Text: 실패하지 않는 포교!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비의 맞춤 기도법!! 대행사찰에 맞서 살아남을 포교원과 암자과 과연 몇이나 될까. 소송이 토굴수행 중 이인으로부터 전수받은지 수년여라. 포교입상 5년에 비전으로 남길까 했으나 포교원과 암자에서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도법을 행하면 1. 신도가 끊이지 않는다. 2. 재정이 넉넉하게 확립된다. 3. 도심포교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 4. 이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볼도 체험한다.(5년동안 1명실배) 5. 이 기도를 행하는 불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나쁜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참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된다. 스님들께서 무조건 '기도해봐'라는 방식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스님들께서는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적절한 절차와 법에 따르는 기도법이 있음을 알고 불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전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전에 근기에 맞게 대가설법을 하셨듯이... *대상: 스님과 포교사(별도상당) *각 신방단체 및 개인불자들도 상담에 드립니다. (후원금: 10萬) 108일간 접수후 신청하신 수만큼 책자제작 및 전수 예정 상담시간 : 13 - 18시 접수 : 031)388-1311 후원계좌 : 농협 136-12-572481 상담자 : 해공 방문하실 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0번지 (비산시장 옆)